

위기를 헤쳐나가는 관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내기업들의 대부분이 외환위기 시절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국내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경영여건에 대해 기업들의 78.9%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42.5%) 더 어렵다(36.4%)고 밝혔다. 경영여건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21.1%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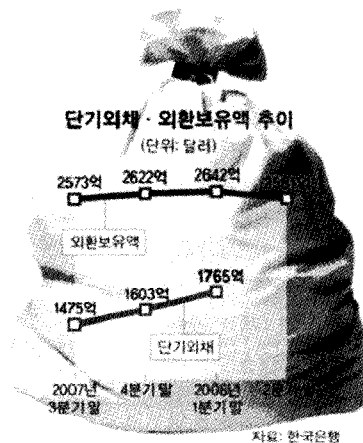
경영여건 지난 IMF와 비슷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85.5%가 IMF 외환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고 응답해 대기업(58.8%)보다 고통의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내수 부문(81.2%)이 수출부문(69.2%)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업들이 경제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내수침체 등 경기침체 지속(5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유동성 악화 등 자금조달 애로(20.4%), 영업이익 감소 등 실적 악화(19.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계획 변경에 대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아직까지

투자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는 응답이 63.9%, 채용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는 응답은 81.0%에 달했다. 투자 축소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27.8%, 오히려 확대 또는 확대 검토 기업도 7.5%에 달했다.



환율 급등으로 손실입어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손실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3.9%가 환율상승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고, 수출호조 등 이익이 발생했다고 답한 기업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식품(59.1%), 석유화학(52.6%), 기계(52.0%) 업종은 손실발생 기업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을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따져보면 매출액 대비 평

균 11.1%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 유동성 및 경영실적 악화 등 우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율 및 금리안정,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금융규제 완화 등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불안이 10년 만에 다시 한국경제를 뒤덮고 있다고 말한다. 반전 비장의 카드는 없는가. 과거 추락했다가 극복 중인 몇개 기업들을 살펴본다. 기업의 회생에는 최고경영자와 직원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특히 CEO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기업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워크아웃 중인 기업을 극적으로 회생시켰다.

CEO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

절체절명 위기 앞에 경영 정상화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사장인 나부터 앞바다에 뛰어들겠다고 사장이 2001년 3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회사에 취임한 말이다. 이 회사는 1990년대 초 불어닥친 세계 유화경기 불황과 98년 시작된 IMF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정부의 7개 업종 빅딜 대상 기업에 선정됐지만 부채 비율 780%, 빚 2조3천억원을 가진 부실 회사를 맡으려는 곳은 없었다. 이때 부임한 사장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남은 임직원들은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혼연일체로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사장은 이듬해인 2002년 서바이벌-1000이라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최악 시황에서도 10% 경상이익 달성을 위해 3년 동안 강도 높은 원가 절감을 이

루자는 것이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 직원 영혼에 호소하는 캠페인이었다고 회상한다. 이 작업으로 회사는 에너지 비용 1200억원, 물류비 1000만달러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그해 경상이익 흑자 전환했다. 사장은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토탈(Total)의 외자 유치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2001년 5월부터 2년 동안 프랑스에 50여 차례 출장을 다니며 토탈 측을 설득했다. 토탈은 열정과 자구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 2003년 8월 토탈에서 1조원 투자를 받아내며 50대50 합작에 성공했다.

직원들 영혼에 호소하는 캠페인

최근 불경기가 가속되자 간부회의를 열었다. 본사 임원들을 포함해 해외 주재원, 국내 지점장, 공장장 등을 인터넷 영상으로 연결해 생존방안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날 회의에서 사장은 3S 실천을 강조했다. 3S는 시너지(Synergy), 정보 공유(Sharing), 스피드(Speed up)를 일컫는 것으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새롭게 선정한 경영 기치다. 어려울 때일수록 특정 부서만의 힘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힘든 만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신속한 결정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다른 회사 부회장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바닥은 없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이번 경제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회장은 휴일에도 회사로 출근했다. 지난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을 내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세를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경제위기를 보면 지난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난다며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회사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회사 오너

위치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모든 것을 내던진 부회장은 다음 작업으로 임직원들을 하나로 묶었다. 회의가 길어지면 부회장 방에서 임직원과 함께 자장면을 시켜 먹는 일도 다반사였다. 인사 원칙도 다시 세웠다. 경쟁사에 비해 제품 라인업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모델이라도 실패하면 안 된다며 회사 존폐는 제품 개발 능력에 달렸다고 믿고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휴대폰 시장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기업개선작업 돌입 당시를 생각하며 이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너 위치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변신

이번에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몰고왔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 투자규모만 5조원에 달했던 제철소 건설이 한창이던 회사는 97년 1월, 계열사가 동시에 부도를 선언 칩물. 법정관리와 함께 경영을 맡은 사람이 은행 출신 관리인이다. 그는 현장에서 승부를 내기로 작정했다. 현장밀착 경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직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한 것이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계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매월 열어 회사 상황과 경영성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주인이 따로 없다는 것은 전 직원이 모두 주인이라는 얘기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부도 직후 공장에는 포장도 안 뜯고 내버려진 설비들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했다. 모든 설비에 현장직원들을 빠짐없이 지정하는 담당자제도를 만들었다. 직원마다 설비를 지정해 평소에 책임지고 해당 시설을 닦고 기름칠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노력 결과 생산성은 5년여 만에 30% 이상 높아졌고, 영업이익까지 났다. 2004년 매각될 때까지 스스로 거둔 영업이익으로 빚도 갚고 세금도 냈을 정도로 확 바뀌었다.

위기일수록 핵심사업에 더 투자 신동력 찾아야

또다른 회사의 경우, 위기가 왔다고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죽는다. 위기일수록 핵심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사장은 적자에 허덕이던 당시 회사의 구원투수였다. 2001년 사장에게 모험의 시기였다. 사장은 먼저 다른 임원들과 함께 월급의 30%를 자발적으로 삭감했다. 대신 나머지 직원들은 10% 삭감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용을 아껴야 했지만 직원들의 사기까지 무너뜨리면 회사가 회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자원개발이었고, 현재 자원개발의 붓물이 된 가스전 개발의 시초가 됐다. 기업이 어려울 때 투자를 줄이고 새로운 사업은 대개 접지만 핵심사업에는 최대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제르바이잔, 파푸아뉴기니, 마다가스카르 등 현재 주요 무역국이 된 이들 나라는 당시 이름조차 생소했다. 하지만 사장의 블루오션 전략이 무너진 기업을 살렸다.

다른 회사의 경우, 지난해 컴퓨터회사를 인수할 때는 왜 경쟁이 심한 PC 사업에 뛰어들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흑자를 기록하자 주변에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사장은 지난해 6월 회사 인수 당시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왜 회사를 인수했느냐는 염려를 불식시키며 상반기 흑자에 옛 명성을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할 기회가 많고 돈을 벌 기회가 많다는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돈벌 기회가 많다는 것

법정관리 중인 회사는 지난해 6월 다른 회사에 인

수된 지 채 1년도 안 된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졸업했고 회사도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섰다. 한때 2조원을 넘었던 매출도 지난해에는 2천억원대까지 줄어들었다. 법정관리 이후 몸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유통망도 상당히 이탈했다며 매주 지방을 돌아다니며 지역 총판과 유통점, AS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의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침체에 빠진 애플이 회생할 수 있던 비결은 아이팟과 같은 혁신적인 신제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서게 됐다. 경제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반드시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 산양처럼 일하자. 사장은 최근 사냥개와 산양의 비유를 들어 직원들을 독려했다. 사냥개는 여러 사냥감 중 하나인 산양을 잡으려 뛰지만 산양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사냥개가 더 빠르지만 결코 산양을 붙잡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비유는 회사가 벼랑 끝에 몰려본 처절한 경험에서 나왔다. 실제 지난 2년은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

뼈를 깎는 구조개편과 현장 중시 경영 추진

2006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년 반 동안 적자 수렁에 빠졌다. 이때 사장이 회사를 부활시키기 위해 취한 행동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은 뼈를 깎는 사업구조개편. 수익성이 한계에 달한 브라운관 공장과 일부 해외 공장을 폐쇄했다. 현장중시 경영도 펼쳤다. 재기의 발판이 될 사업분야를 정해 그 부문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충전용 전지를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여겨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고난 속에 죽을 힘을 다해 땀 덕분에 올해 2분기 흑자전환했다.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했다

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 셈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비교에서 교훈

11년 전 신문을 구해보고 싶은데요. 외환위기 때 상황과 지금을 신문을 통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발 신용경색 쓰나미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의 추억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물론 추억에 대한 ‘감상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상황이 똑같다. 외환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시장에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11년 전 외환위기와 지금 한국이 처한 금융위기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

1997년 10월 9일 신문 1면에 주가 폭락 연중 최저치...금리 일제 상승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최근 많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주식 폭락, 환율 폭등 기사와 그야말로 판박이다. 외환위기가 다가오던 1997년 9월 주가 폭락, 환율 상승 내용이 담긴 기사가 1면에만 9번이나 게재됐다. 10월 들어서 그 횟수는 더욱 늘어났다. 폭락장 속에서 간혹 주가 폭등이라는 기사가 간간히 보이는 것도 오늘날과 유사하다.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불안정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정부 움직임도 비슷한 측면이 많다. 1997년 8월 24일자 1면 톱기사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였다. 부실 은행으로 전략한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4조원 규모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제공하고 일부 금융회사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겠다는 내용이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이 대책 마련을 주도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종합대책도 이

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300억달러 직접 공급 등 시중은행에 달러, 원화 유동성을 공급해 ‘돈가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다. 당시 금융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이번 ‘10·19 대책’ 이후에도 시장에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기사들이 보도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1997년과 같은 대기업 부도 소식이 아직 신문 지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당시에는 대기업 부도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1997년 1월 24일자 1면 머리기사는 한보철강 부도 처리였다. 당시 재계 10대 그룹 중 하나였던 한보그룹이 도산한 것이다. 이후 삼미그룹(3월 19일) 진로그룹(4월 21일) 대농그룹(5월 28일) 등 대기업 도산 관련 보도가 거의 매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7월에는 채권단이 기아차그룹 부도유예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훈은 우선 리더십의 문제다. 1997년 8월 당시 경제위기 탈출 이대론 안 된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통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리더십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휩싸여 제대로 된 수습책을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같은 1997년 지적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이다.

단호하고 추진력있는 정부의 대응 요구

최근 현재는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고 했다가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당연히 일관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시장 혼란

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997년이나 2008년이나 정부가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 괜찮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미 한 번 정부에 속은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다. 단호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긴장의 끈을 쉽게 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1997년 9월 말 위기가 일부 진정되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들 발언이 잇따라 보도됐다. 1997년 10월 1일자 1면에는 당시 한국은행 관계자 말을 인용해 “외환자금난이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하지만 그런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10월 중순부터 다시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고 제2, 3금융권 부도설이 흘러나오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소용돌이가 거세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외국언론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에 97년 말 외환위기 같은 위기는 없다’는 것이다. 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한 시장참여자들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정부의 정책과 자유화측면 더 유연성 확보

리처드 머레이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현재 한국의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현저하게 다르다며 정부의 정책과 자유화 측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졌고, 외환보유액도 그때보다 훨씬 많다. 경제가 훨씬 더 튼튼하다고 평가했다. 머레이 상임이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관련한 해명을 통해

“IMF가 신흥시장 국가들의 단기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새로운 달러 통화스왑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국가나 브라질 멕시코 등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겠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같은 ‘난파’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세계 6위 외환보유액, 개선된 기업의 재무구조 등 현재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르다며 건전한 재정 등 정책 운용 여지도 충분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국적인 리더십 발휘

세계 경제 빅뱅으로 우리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추락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을 포함해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외환보유액도 괜찮고, 기업실적도 괜찮고, 경상수지도 이제 곧 흑자로 돌아선다는데 우리 금융시장 휘청거리는 것도 허약한 리더십 때문이다. 원화값은 더욱 떨어졌다. 코스피 1000선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사실 외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안이한 상황 인식을 보여 시장 참여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건전하게 재건된다면 우리 금융시장이 일거에 다시 일어설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대책을 주문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현 경제상황 비교

국가 대외 건전성

1997년	구분	'08년 9월
20.4	외환보유액(십억달러)	239.1
-8.2	경상수지(십억달러)	-13~174*
174.2	총외채(십억달러)	419.7
63.7	단기외채(십억달러)	175.6
312.5	외환보유 대비 단기외채 비율(%)	68.1

※총외채, 단기외채, 외채비율은 2008년 6월기준, *는 예상치

은행

1997년	구분	'08년 6월말
7.04%	BIS 자기자본비율	11.95%
-0.93%	총자산순이익률(ROA)	1.08% ('07년 기준)

기업

1997년	구분	'08년 6월말
115.0%	이자보상 비율	630.5%
424.6%	부채 비율	96.4%
5.6%	매출액 영업이익률	7.6%

초당적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략을 짜야 한다. 전쟁 때 모든 군사 정보를 모아 전술과 전략을 만드는 워룸과 같은 조직이 당장 필요한 이유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시 내각을 짜듯 국내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아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책 초안을 도출해내는 거국적인 워룸을 구성해야 한다. 워룸에는 관료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위기를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국내 금융인과 기업인 등은 물론 월가전문가들도 참여해 현장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전해야 한다. 또 여야 정치 리더들이 참여해 워룸에서 도출된 결론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통령 국제자문위원회와 같은 기존

조직을 활용해 국외 리더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상하관계를 따지지 말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데려다 의견을 듣는 형식 파괴도 필요하다.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칭찬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금융위기 대처법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한발 빠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대통령은 위룸을 만들어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

범국민적인 일체감 복돋워야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달러 가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이 10년 전 금모으기 운동을 펼쳐 위환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이제는 범국민적인 달러모으기 운동을 펼칠 때다. 무심코 넣어둔 장롱 속 달러가 있다면 은행 외화예금에 맡겨라. 이처럼 한 푼 두 푼 모아진 달러가 외화유동성 경색을 넘기는 데 충분히 일조하며 국민의 의견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달러 모으기 캠페인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은행은 장롱 속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외화예금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재테크 차원에서도 검토할 만하다.

달러모으기 운동에는 재외동포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이 모국에 보내오는 외화가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다. 일부 동포들 사이에 외화 송금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외환시장 안정에 가세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수출대금으로 확보한 외화를 은행에 적극 내다팔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이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정부가 사상 초유의 은행 지급 보증을 약속해도 주가는 내려간다. 이유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위기가 실물부문의 전이될 조짐이 보이자 일부 전문가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 가운데 충분이 역점을 두기도 한다. 환율, 주가 등 금융 문제는 시장이 결국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여유를 갖고 대응하되 대책을 내놓으려면 확실해야 한다며 좀 더 충분한 정책으로 현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이제는 실물경제 붕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외국에 한국경제

한국 경제의 실상을 알릴 외신 전문 홍보채널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신에서는 자꾸 한국이 다시 위기를 겪을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에 경제 부처가 힘을 합쳐 해명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한국 위기설은 다시 외신에 보도됐다. 한국의 경제 실상을 제대로 홍보할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각 부처들이 따로따로 외신 보도에 대처할 게 아니라 하나의 홍보채널로 통일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취업자 증가 수는 11만2000명에 그쳤다. 3년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었다. 위기일수록 긴 호흡에서 보다 장기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황기는 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시험대다. 위기는 경쟁사를 따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성공 기업은 이미 수립한 비상대책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오히려 회사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투자에 나선다. 불황기일수록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밀착 관리하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